

서학의 수용과 지식생산: 上海格致書院의 ‘考課’를 중심으로

박영순(국민대)

I. 시작하며

중국 근대의 학술은 서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학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중국 전통학문에 대한 재인식의 문제와 연동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서학동점기는 서학을 수용함과 동시에 중국의 전통지식체계를 재인식하고 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갑오전쟁 전후부터는 서세(西勢)의 범위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양무의 수요도 더욱 급박해져갔고, 양무지식인들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서학에서 찾고자했다. 이에 당시 위원(魏源)·왕도(王韜)·정관응(鄭觀應)·풍계분(馮桂芬)·이홍장 등의 양무관료와 지식인들은 양무학당, 무비(武備)학당, 교회서원, 신식서원 등의 교육기구를 통해 중, 서학에 대한 공부와 양무 인재 배양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근대 중국의 서학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서학동점기에 양무지식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중국 전통지식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서학동점시기 양무 지식을 생산하고 서학을 전파하던 교회학교나 양무학당 및 관련 매체들은 서학의 유입 이후에 생겨난 산물이지만, 서학의 유입으로 가장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기존의 중국의 전통학술체계와 관련 교육기구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당시 신식서원 역시 서학을 수용, 전파함과 동시에 전통학문체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나갔다. 신식서원 가운데 서학 전파와 양무 인재양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 교육기구 중의 하나가 1874년에 설립한 상하이격치서원(上海格致書院, 이하 격치서원으로 약칭)이다. 격치서원은 중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하여 설립한 교육기구로서 청말 서학전파에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 특히 ‘고과(考課)’의 활동을 통해 서학을 전파함과 동시에 양무 지식인들이 서학을 논의하는 학술의 장이 되었다. 따라서 격치서원과 격치서원의 고과는 당시 양무 관료와 지식인들의 서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격치서원의 고과 활동은 1886년 프라이어(John Fryer, 중국 이름은 傅蘭雅)의 제의로 설립하여 서학 전파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고과는 1886년-1894년까지 매년 4계절로 나눈 정규시험 계과(季課)와 1889년-1993년까지는 봄·가을 두 번에 치는 특과(特課) 두 개를 개설하였다. 당시 격치서원의 운영자였던 양무지식인 왕도(王韜)는 관련 시험제목과 출제자·우수자·우수답안지 등을 취합하여 『격치서원과예(格致書院課藝)』를 간행했다.¹⁾ 이 안에는 주로 당시 서학 지식에 대한 인식·수용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생산기제를 보면, 어떤 특정한 ‘시대 혹은 상황’에서 어떤 ‘기구’(혹은 조직)의 ‘행위자(지식인)’들이 특정 ‘활동(혹은 제도)’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본고는 격치서원과 격치서원의 고과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크게 지식생산 기구[격치서원], 지식인[출제자·응시자], 활동[고과], 지식[격치] 4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격치서원과 고과

1) 격치서원의 고과는 1908년까지 약20여 년 지속되었지만 현존하는 것은 1886년-1894년 기간의 내용이다. 상해서국판(『格致課藝匯編』으로도 칭함, 13권), 상해대문서국판(上海大文書局版)(15권), 상해부강재판(上海富強齋版)(13권)이 있다. 최근 15권을 4책으로 통합하여 上海圖書館, 『格致書院課藝』4冊(상해: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6)이 출판되었다. 본고는 『격치서원과예』(15권)에 수록된 내용을 주로하고,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분석한 저서 및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의 지식생산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격치서원과 고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정정도의 연구 성과를 보였다.²⁾ 그러나 대부분은 서학동점 영역이나 특정 과학사의 시각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식생산체계의 관점에서 기구·인물·활동·지식생산 등을 하나로 묶어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³⁾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 격치서원[기구]·활동[제도]·인물[행위자] 세 부분을 중심 키워드로 하여, 먼저 격치서원의 설립과 운영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제도와 인물의 측면에서, 고과의 시행과 행위자(출제자와 수상자)를 분석하고, 끝으로 고과의 지식생산의 대략적 면모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당시 신식서원에서 어떻게 양무 인재를 기르고 서학 지식을 전파·수용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격치서원과 고과는 어떤 지식생산기제로서의 특징과 함의를 지니는 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II. 상하이격치서원의 설립과 운영

동치(同治), 광서(光緒) 시기의 서원개혁은 전통서원에 대한 개조와 새로운 형태의 신식서원의 창립을 동시에 실시했다. 서방열강의 유입으로 인한 외적 위기감과 서원 내부의 폐단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원이 관학화되면서 과거제도의 부속물이 되어갔고, 과거준비를 위한 팔고문 위주의 학습은 서방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중국의 향과 읍에는 서원들이 즐비하며 사람들은 문장에 공을 들이고 과거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일삼는 게 없다. ……오늘날 인접국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분위기도 날로 변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들은 각종 기술과 정교한 물건으로 우리의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의 팔고문이나 오언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한번 묻고 싶다. 팔고문으로 그들의 군함을 대적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의 총과 대포 같은 무기를 대항할 수 있는가? 역시 그렇지 못할 것이다.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변화하려하지 않는 것은 병에 걸렸는데도 의사를 만나려하지 않아서 반드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⁴⁾라는 것이다.

양무시기를 전후로 생긴 교육기구는 대체로 서양언어와 번역을 담당한 상하이광방언관(上海廣方言館, 1863년 설립)이나 서방의 군사기술을 익히는 무비학당(武備學堂) 등과 같은 양무학당, 주로 지방의 사신(士紳)들이 세운 전통서원을 개조한 신식서원 및 주로 서방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서원 등이다.⁵⁾ 격치서원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격치서원은 기타 신식서원

2) 격치서원과 고과에 대한 문헌을 정리한 문헌자료로는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80년)가 있고, 연구서로는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為例』(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년)와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1년) 등이 있다. 학위논문으로는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上海: 上海社會科學院碩士學位論文, 2015년), 沈立平, 『格致書院課藝中的科學內容研究』(上海: 上海交通大學碩士學位論文, 2009년) 및 학술논문으로 제도, 지식인, 서학관 등을 다룬 尚智叢, 「1886-1894年間近代科學在晚清知識分子中的影響: 上海格致書院格致類課藝分析」(北京: 『清史研究』, 2001년 8월), 郝秉鍵, 「晚清民間知識分子的西學觀: 以上海格致書院為例」(北京: 『清史研究』, 2006년 8월) 등이 있다.

3) 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 以『格致書院課藝』為中心」(上海: 『學術月刊』, 2016년 7월)과 같은 연구가 대표적이다.

4) “乃觀中國一鄉一邑, 書院林立, 所工者惟文章也, 所求者乃科舉也, 而此外則別無所事。……今日四隣日強, 風氣日變, 泰西諸國各出奇技淫巧以賺我錢, 而我之八股五言曾不足邀彼一盼, 試問制藝能御彼之輪艦乎? 曰不能也; 能敵彼之槍炮乎? 曰不能也。自知不能而尚不亟思變通, 是猶諱病忌醫, 必至不可救藥也。” 陳谷嘉·鄧洪波, 『中國書院史資資』,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8년, 1968-1969쪽.

과는 조금 다른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이를 테면, 당시 용문(龍門)서원, 구지(求志)서원 등과 같은 신식서원은 경세치용과 통경치용(通經致用)을 기치로 내세워 국문·여지·경사(經史)·시무·격치·수학·시가(詩歌) 등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중학(中學)을 위주로 하고 서학은 부차적으로 운영되었고 관방의 산장(山長)을 통한 관리 역시 크게 바꾸지 않았다.⁶⁾

그러나 격치서원처럼 양무 관료와 지식인의 지원 하에 중국인과 외국인이 합작 설립하고, 고과(考課)라는 제도를 통해 서학을 전파하고 양무 인재를 양성한 서원은 거의 드물었다. 격치서원은 서양의 선교사, 사업가와 중국의 양무파 관료·사업가·지방사신(士紳) 및 학자들의 지원 하에 관방[官]-사업계[商]-학계[學]의 중외 인사들의 공동협력으로 이루어진 매우 드문 유형이다. 격치서원은 서원이라는 전통적인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전통서원이라 할 수 없으며, 상하이 조계지에 설립되었지만 조계당국과 관련이 없으며, 양무 관료들이 많이 기부했지만 완전히 관방이 설립한 학교만은 아니다. ‘중-서, 官-商-士’의 협력으로 세워진 교육기구로서, 상하이라는 도시의 다양한 이질적 문화가 교차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⁷⁾

격치서원은 1874년 상하이 주재 영국 영사이자 선교사인 메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 중국 이름은 麥華陀)가 설립을 제의하였고, 그 후 이사회의 발족과 더불어 진행되기 시작했다.⁸⁾ 1875년 교사(校舍)가 완공되고 1876년 조계지 베이하이루(北海路)에 정식 개원하였다.⁹⁾ 그 후 1879년 학생을 모집하고 1880년 정식 수업에 들어갔다. 격치서원 개원 후 먼저 양무파 지식인 서수(徐壽)가 주관하다가 1884년에 세상을 떠나자 1885년부터는 왕도(王韜)가 운영하였고, 1897년 왕도가 죽자 1888년부터는 조원익(趙元益)이 그 뒤를 이어갔다. 격치서원은 1874년 설립하여 무술정변 이후 중국의 서원들이 점차 쇠락하던 1910년 전후에 폐원했다.¹⁰⁾ 당시 『신보(申報)』에 격치서원 창립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상하이에 세우는 격치서원이 조만간 완공된다. 처음 창설을 제안한 사람은 상하이 주재 영국 영사 메드허스트(Medhurst)선생이다. 공식적으로 와일리(Wylie), 프라이어(Fryer) 등을 서양 측 이사로 선정하였고, 중국 측 이사로 는 당정추, 왕영화, 서수 및 그의 아들 서건인을 선정하였다. 기부자는 북양통상대신 이홍장, 남양통상대신 이종희, 천진관도 손사달, 천진분순도 정수창, 전임 상해관도 심병성, 현임 상해관도 풍준광, 구강관도 심보정, 상해제조국총판 정조여 등이다.¹¹⁾

5) 齊慧敏, 『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 河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年, 19-20쪽 참고.

6) 鄧洪波, 『中國書院史』, 上海: 中國出版集團東方出版中心, 2004年, 570-580쪽 참고.

7) 上海市格致中學·上海市格致中學校友會編著, 『格致校史稿』(第一卷1874-1949), 「熊月之序」,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5년.

8) 1874년 3월 『신보』에 격치서원 장정 총15조를 발표했다. 몇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서원 설립의 본 취지는 중국의 지식인, 상업계 인사들이 서양인과 서양의 일에 대해 깊이 이해함을 통해 상호 우호를 다지기 위함이다. 서원은 조계지 내에 설립한다. 서원의 일체 설립비용은 중국과 해외 지식인, 상인들의 기부에 의존한다. 서원 운영은 이사회를 통해 운용한다. 서원에는 신보(新報)와 번역서, 중국서적 및 각종 기기 등을 비치한다.”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79-280쪽 참고.

9) 지금의 상해격치중학 자리로서 격치중학의 전신이다. 격치서원은 ‘지신당(知新堂, 일종의 박물관), ‘격치방(일종의 강의실), ‘서방(書房, 일종의 도서관)’ 세 구조로 건축하였다. 격치서원의 간판은 북양대신 이홍장이 썼다.

10) 실제로 주요 활동했던 시기는 1880년-1900년 정도의 약20여 년간이다. 연구자에 따라 폐원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1908년(劉明, 「格致書院考課制度述論」, 20쪽), 1911년(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 以『格致書院課藝』爲中心」, 140쪽), 1913년(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80쪽), 1873년-1914년(郝秉健·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爲例』, 6쪽) 등이 있다.

11) “滬上議建格致書院, 不日將可落成矣. 其首倡創造者, 英國駐滬之領事麥君者也. 公舉西國之董事, 則

1874년에 선출된 이사진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 측 이사진은 메드허스트, 프라이어(John Fryer, 중국 이름은 傅蘭雅, 영국선교사), 와일리(Alexander Wylie, 중국 이름은 偉力亞烈, 영국선교사), 포브스(미국사업가, 중국 이름은 福弼士, Russell & Co. 旗昌洋行行長), 토드마(Toddma, 중국 이름은 敬妥瑪, 영국인), 드러먼드(W.V. Drummond, 중국 이름은 丹文, 미국변호사), 맥고완(Daniel J. MacGowan, 중국 이름은 瑪高溫, 미국선교사) 등이다. 중국 측은 당정추(唐廷樞)·서수(徐壽)·화형방(華蘅芳)·왕영화(王榮和)·서건인(徐建寅)·이봉포(李鳳苞)·서화봉(徐華封)·장환륜(張煥倫)·왕도(王韜)·조원익(趙元益)·이평서(李平書) 등으로 국내외 관료·선교사·변호사·양무지식인·학자·사업가들이다.¹²⁾ 이처럼 격치서원은 중·서 관료·사업가·선교사·학자 등 당시 양무파 상층인물들이다. 반면, 청대의 서원은 설립 주체로 볼 때, 절대 다수가 관방이거나 관부의 제의로 지방유지와 민간인이 기부하여 설치한 것이다.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관학에 속하고 서원의 각종 업무와 교학은 대체로 산장(山長)의 지시에 따랐으며 관부의 통제도 받았다. 격치서원은 이와 달리 중서 각계 인사들이 공동 기부하여 창설하고, 다양한 신분을 가진 국내외 주체들이 이사회를 통해 운영·관리하였다.¹³⁾ 이러한 운영체제는 서학을 수용하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형성한 것이다.

설립주체와 운영체제 외에도 격치서원의 창립 비용 역시 정부관원, 지방관료, 지식인, 사업가 및 일부 민간인들의 기부금으로 조달되었다. 특히 양무 관료의 지원이 가장 컸다. 1875년 격치서원의 모금액은 약 은6979냥과 1541洋元에 달한다.¹⁴⁾ 이중 관료들이 기부한 금액은 약 은5413냥과 630洋元으로 총금액의 각각 73.4%, 40.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직례총독(直隸總督) 이홍장(은1087냥), 양강총독(兩江總督) 이종희(은1000냥), 소송태병비도(蘇松太兵備道) 풍준광(은2000냥) 세 명이 기부한 은4087냥은 전체의 75.5%를 차지한다. 한편 사업가는 약

偉君力亞烈, 傅君蘭雅也。公舉中國之董事, 則唐廷樞·王榮和·徐壽及其子徐建寅也。捐資助成者, 北洋通商大臣李鴻章, 南洋通商大臣李宗羲, 天津關道孫士達, 天津分巡道丁壽昌, 前任上海關道沈秉成, 現任上海關道馮煥光, 九江關道沈保靖, 上海製造局總辦鄭藻如也。”『신보』, 광서 원년 9월 7일.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為例』, 15쪽 재인용.

12) 이사진들의 대표적 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메드허스트는 중국어에 정통하고 중국 사정에 매우 밝았다. 프라이어는 북경동문관, 상해영화학당(上海英華學堂),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번역관에서 근무하였고, 익지회(益智會)를 설립하고 『중서문견록(中西聞見錄)』을 출판하는 등 서학전파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와일리는 중국어·만주어·몽고어에 정통하였고 강남제조국에서 근무하였다. 포브스는 미국 Russell & Co.(旗昌洋行) 행장이자 아주문회(亞洲文會)회장을 역임했다. 중국 측 이사로 당정추는 운선초상국(輪船招商局, 선박운송회사)의 총판(總辦)이었고, 일찍이 교회학교에서 수학을 했으며 영어에 정통하고 양행(洋行)의 매판상이었다. 왕영화는 강해관도(江海關道)번역사였다. 그 외 양무 학자출신 서수·서건인·화형방·왕도·조원익과 독일주재 중국공사 이봉포 등이 있다.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為例』, 13쪽 참고.

13) 예를 들면, 1878년 4월 6일자: 전번 회의 의사기록을 낭독했다. 비서가 이사회에 업무 및 재무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수(徐壽)의 과학기기, 장비구매, 서원토지매매 증명관리 등의 사항을 낭독했다. 1885년 6월 10일자: 프리이어가 격치서원의 4차 보고서 제출. 서건인(徐建寅)의 서원 관리제도 수정 관련 제의 승인. 서원 경영상태 관리담당 '전문위원회' 설립 승인. 글러버(George B. Glover 중국이름 吉羅福)의 이사장 사임동의, 드러먼드(W.V. Drummond, 중국 이름은 丹文)를 이사장으로 임명. 「格致書院董事會會議紀要」, 『北華捷報』, 1878, 1885.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為例』, 20쪽 재인용.

14) 기부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홍장·이종희·풍준광·오육인(吳育仁)·심병성(沈秉成)·정수창(丁壽昌)·손사달(孫士達)·심보정(沈保靖)·정조여(鄭藻如)·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중국이름은 威妥瑪)·섭정권(葉廷眷)·심모(潘某)·당정추·서운·주기양(朱其昂)·주기소(朱其昭)·성선희(盛宣懷)·블라트(Blat, 伯拉特). 대부분 양무 관료들이다. 상업계는 주로 상하에서 체류하는 양행(洋行), 양행총판(洋行總辦) 등이 기부했다. 이 밖에도 이봉포(李鳳苞)·고중렴(高仲濂)·고씨여성(顧氏小姐)·프라이어·장관신(張冠臣)·임벽암(林碧巖)·왕영화·서수 등 개별적으로 기부한 경우도 있다.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18-20쪽 참고.

은 1183냥과 551洋元으로 총금액의 각각 16.95%, 35.76%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각계 관원과 사업가, 매판가와 양무 학자들이 정례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¹⁵⁾ 이로 볼 때 격치서원의 설립기금은 양무파 관료들의 지원이 가장 컸으며, 이는 고과의 출제자 빈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3장의 2) 참고)

격치서원 설립 당시는 양무운동의 시대적 수요에 따라 서학을 가르치고 서학에 정통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프라이어는 격치서원의 설립 방향과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의 시장개방 이래 중국과 해외가 연결하여 각 분야의 교류를 진행해왔다. 서학이 중국으로 들어온 지도 이미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시무를 아는 자는 서학이 실용에 유익하다고 기뻐하고, 도리에 밝은 자들도 서학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칭찬했으며, 계속 모방하여 동문관, 방언관을 개설했다. …… 그러나 이는 서학의 일부분을 모방한 것일 뿐 서학의 전파를 촉진하는 중요한 활동은 아니다. 그래서 광서 초, 중서 유명 인사들이 상하이 오송강(吳淞江)에 격치서원을 세웠다.”¹⁶⁾

양무파가 세운 양무학당들은 서법(西法)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서학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무적 측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학술적 측면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학 수용의 근본적 목적은 교육의 발전에 있지 단순하게 언어를 익히거나 기술을 이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격치서원은 프라이어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서학에 정통한 실용적인 인재 육성하고자 서학과목을 개설하고,¹⁷⁾ 특히 ‘고과’의 활동을 통해 서학의 전파와 연구를 진행해 나갔다.

이상, 설립배경, 이사회와 관리체제, 설립 기금, 과목 개설, 설립 취지와 목적 등으로 볼 때, 격치서원은 당시 전통서원과 다른 ‘중-서, 관료-사업가-사대부’가 연합하여 당시 양무의 수요에 따라 서학의 수용과 전파에 힘을 기울인 교육기구였다. 이러한 특징은 ‘고과’의 활동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Ⅲ. ‘고과’의 활동과 행위자 분석

1. 고과의 시행

15) 총 34명의 정례기부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정추·서운·저중형(儲仲衡)·저용보(儲蓉甫)·당병이(唐秉彝)·설명곡(薛明谷)·이관지(李貫之)·송자형(宋子衡)·주운경(周雲卿)·정관응·갈절효(葛絕孝)·오승지(吳承之)·주기앙(朱其昂)·성선희(盛宣懷)·주양경(鄒讓卿)·손문전(孫文田)·황악천(黃嶽川)·당취경(唐聚卿)·오조생(伍藻生)·양향천(梁香泉)·오려당(吳麗堂)·범걸신(范杰臣)·하내소(何乃昭)·황서파(黃瑞派)·진치(陳熾)·왕성원(王星垣)·황건암(黃健庵)·진성해(陳星海)·이송운(李松雲)·황영정(黃咏靖)·왕온보(汪溫甫)·위문보(韋文圃)·당요경(唐翹卿)·당정식(唐廷植). 설립기금 관련자료는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20-22쪽;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為例』, 22-23쪽;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82-284쪽 등 참고.

16) “中外互市以來, 華洋既接, 各事交通, 西學之流進中國者已非朝夕, 識時務者, 每喜西學之有裨實用; 明道理者亦喜西學之足擴襟懷. 一再仿行, 因設同文, 方言之館. …… 然此特國家仿效西法之一端, 猶非振興西學之盛舉. 光緒初年, 中西名士創辦格致書院於滬濱.” 프라이어, 「格致書院西學課程序」, 광서 22년 『上海格致書院刊印』,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為例』, 11-12쪽 재인용.

17) 광무(礦務)·전무(電務)·측량·엔지니어·기기·제조 6개 서학 과목을 개설하였다. 6개 과목 아래에 세부 과목을 개설하였다. 전무 아래에 수학·대수학·기하·삼각·重學·기학·열학 등을 개설하였다.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85쪽 참고.

격치서원의 고과(考課) 활동은 왕도가 격치서원을 주관하던 당시 1886년 프라이어의 제의로 설립하면서 서학 전파의 메커니즘이 되었다. 고과는 1886년-1894년까지 매년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나눈 정규시험 계과(季課, 正課·常課·定試라고도 함)가 개설되었고, 1889년-1893년까지는 봄·가을 두 계절의 특과(特課)가 각각 개설되었다. 격치서원의 고과는 양무운동의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양무파 관료와 양무 지식인들이 서학을 논의하고 전파하는 장이 되었다. 왕도와 프라이어는 서학과 시무에 정통한 관료, 사신(士紳)들을 초청하여 출제·평가·수상을 맡겼다. 양무 고위관료 이홍장·증국전(曾國荃)·유곤일(劉坤一)에서부터 시무에 정통한 설복성(薛福成)·정관응(鄭觀應)·성선희(盛宣懷) 그리고 국제사회와 접촉이 많은 세관원 공조원(龔照璦)·오인손(吳引孫)·섭집규(攝集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무파 인사들이 고과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 중 특과의 봄 시험[春課]은 북양대신 이홍장이, 가을 시험[秋課]은 남양대신(南洋大臣) 증국전과 유곤일이 출제하였다. 1886년-1894년까지 9년간 총 18명이 46회에 걸쳐 총 88문제를 출제하고, 우수수상자는 88명이었다.¹⁸⁾ 출제내용의 대부분은 서학과 시무 관련 문제였다.

왕도는 고과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프라이어의 뜻은 국내 인사들과 문필의 인연을 맺어 글을 통해 이끌어 격치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시험 기간은 매년 4분기로 나누어, 내가 주요 인사에게 사인들의 학업을 시험하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¹⁹⁾라고 그 취지와 기본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 후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1886년 『신보』에 고과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격치란 두 글자가 포함하는 함의는 넓다. 모든 서학은 격치로부터 나와 격치를 기초로 한다. 그 정미함을 논할 때마다 학자들은 매번 매우 어려워한다. 예를 들어 확충해서 말하자면, 모든 부국·강병·광물개발·재무·기기제작·기계제조 등은 격치를 강구함으로써 나온 것이며, 이 모든 것에 격치가 두루 포함되지 않음이 없다. 지금 서원에서 중서 이사들이 문장으로 사인들의 학업을 시험하고자 한다. 먼저 문제를 출제하면 어느 곳의 지식인을 막론하고 문제에 따라 사실을 논술한다. 다 모은 후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등급을 정하고 우열을 나눈다.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상금을 주어 장려한다. 이로써 격치의 후대들이 서학을 논하는 것을 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시험 문제는 책문 방식을 따르며, 내용은 양무를 위주로 하며 부수적으로 부국·강병·기기제작·급료조달 등의 종류이다.…… 응시자는 이미 관직이 올랐거나 혹은 멀리 막부에 있거나 또는 舉·貢·

18) 학자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숭웨이 선생은 1886년-1894년 9년간 총 46차례의 시험에 총 88문제를 18명이 출제하였고, 수상자는 초등·특등·1등이 총 2,090명인데 이 가운데 『격치서원과예』에 실린 사람은 92명이라고 함(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93-301쪽. 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 以『格致書院課藝』爲中心」, 69-72쪽), 왕얼민 선생은 17명이 출제하였고, 우수수상자는 86명이라 함(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54-55쪽), 류밍의 논문에서는 총 48차례의 시험[1984년 춘계 특과는 당시 이홍장이 제출했다는 제목만 있고 공포하진 않았으므로 실제로는 47차례임]에 총 89문제를 18명이 출제하였고, 수상자는 초등·특등·1등이 총 2,090명인데 이 가운데 『격치서원과예』에는 88명의 345편이 실렸다고 함(劉明, 「格致書院考課制度述論」, 27쪽;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37-39쪽). 이 외에도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爲例』, 尚智叢, 「1886-1894年間近代科學在晚清知識分子中的影響: 上海格致書院格致類課藝分析」 등 참고. 이 가운데 시험회수와 우수수상자의 명수에서 차이가 난다. 계과는 9년간 1년 4회를 특과는 5년간 1년 2회씩 실시했다는 점, 숭웨이 선생은 중천위가 5개의 필명(왕좌재·李龍光·商霖·李培禧·朱震甲)을 쓴 것을 전부 말하고 있는 점, 왕얼민 선생은 1886년-1893년 8년간의 기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19) “傳君之意，欲與海內人士結文字緣，由文字引伸之，俾進於格致。每年分四季爲課期，由余請於當道，出題課士。” 王韜, 『格致書院課藝·格致書院課藝序』,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22쪽 재인용.

生·監이든간에 모두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본 서원은 내용의 우열만을 논하지 관직의 고하는 묻지 않는다.²⁰⁾

격치서원의 출제범위, 시험 종류·목적·방식·대상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부국강병, 기술 등 격치를 주요 시험 범주로 하여 양무에 관심 있는 지식인이면 논술식의 형태로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작성방식, 제출일자와 주소, 상금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²¹⁾ 이처럼 격치서원의 고과 활동은 양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국 사인들에게 서학에 관한 논제를 논술하게 하였고, 서학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취지하에 1886년 4월부터 공식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2. 출제자와 수상자의 특징

1) 출제자의 상황

출제자는 대부분 양무 관료나 지식인, 외국 인사들로서 계과는 주로 각 세관도헌(稅關都憲)이 주관하였고 특과는 남양대신과 북양대신이 주관했다. 1886년-1894년 동안 총18명의 출제자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1886년-1894년 격치서원의 고과 출제자 상황²²⁾

출제자	관직	문제수	출제수
이홍장	직례총판, 북양대신	15	5
섭집규	상해강해관도(上海江海關道), 절강안찰사	13	5
오인손	영파영소도대(寧波寧紹道臺)	12	6
유근일	양강총독(兩江總督), 남양대신	7	3
정관응	초상국총판(招商局總辦)	7	2
성선희	윤선초상국독판(輪船招商局督辦), 산둥등래청도(山東登)	6	6

20) “格致兩字所包者廣，一切西學，無不從格致中來，而以格致爲之基。顧論其精微，學者每苦其難。若擴而充之，舉凡富國強兵開礦理財制械造器皆於格致中講求而出，而格致無不可以兼賅并貫。今閩院內中西董事，擬以文藝課士。先出一題，請遠近之儒，就題論事。匯齊之後則延請名宿，定其甲乙，分其優劣。列於前茅者，例有賞賚，用以鼓舞而興起之，亦格致之緒餘，而講西學者之不可廢者也。” “課題仿照策問體裁，以洋務爲主，旁及富國強兵制械籌餉之類……考者無論已入仕途，或遠就幕府，以及舉貢生監均可投考，本書院只論文字優劣，不問官階崇卑。” 「格致書院擬以藝文考試章程」, 『신보』 1886년 2월 13일. 劉明, 「格致書院考課制度述論」, 21-23쪽 재인용. 책문(策問)은 주어진 문제에 따라 논술식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주로 경의(經義), 정사(政事)문제를 위주로 한다.

21) 기타 장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서원의 시험은 상해도헌(上海道憲) 구지(求志)서원의 정관을 참조하여 매년 4계절로 구분한다. 여름은 4월, 가을은 7월, 겨울은 10월, 봄은 2월이다. 모두 음력 초하루를 기준으로 하며 문제지를 배포하고 제목은 『신보』에 게재하여 어디서든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린다. -문제지 배포 일을 시작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60일 내에 답안지를 제출한다. 봄 시즌은 3월 마지막 날에 마감하고, 여름 시즌은 5월 마지막 날, 가을 시즌은 8월 마지막 날, 겨울 시즌은 11월 마지막 날에 각각 마감한다. 기간을 넘기면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 -시험지는 백지를 사용하며 응시자가 스스로 준비한다. 각 줄에 20자씩 쓰고 시험지 겉면에 주소와 이름을 쓴다. 답안지는 上海六馬路格致書院內賬房으로 접수하고, 영수증을 받은 이후 상금을 수령할 때 증빙으로 사용한다. 단, 통신비는 자체 부담한다. -답안지를 모두 수거한 후 이름과 번호를 봉인하고 도장을 날인 후 담당 교수에게 보내어 보게 한다. 시험답안에 등급을 매기고, 1-3등의 답안지를 신(申), 호(滙) 두 신문에 별호로 등재하고 이후 별도로 책으로 만들어 간행하여 세상에 알린다. -우수 답안지를 선정하여 상금을 제공한다. 내과(內課) 1등에게 은10량 2등에게 은7은량, 3등에게 은 5량을 각각 제공한다. 나머지 상금은 답안지 수에 따라 정한다. 「格致書院擬以藝文考試章程」, 『신보』 1886년 2월 13일.

22)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97쪽.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54-55쪽.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48-49쪽 등 참고.

	萊靑道, 진해관도(津海關道)		
류린상(劉麟祥)	상해강해관도(上海江海關道)	5	1
공조원	상해도대(上海道臺), 절강안찰사	4	4
설복성	영소도대(寧紹道臺), 포정사(布政使), 영국·프랑스·벨기에 대신	3	3
증국전	양강총독, 남양대신	3	1
이정영(李正榮)	등래청도	3	1
호을분(胡燏棻)	진해관도, 광둥안찰사	2	2
프라이어	강남제조국번역, 격치서원이사	2	2
심병성(沈秉成)	서리양강총독(署理兩江總督), 남양대신	2	1
소우림(邵友濂)	상해도대, 소송태도(蘇松太道), 하남안찰사	1	1
주복(周馥)	천진해관도(天津海關道), 연운사(鹽運使)	1	1
허응영(許應金+榮)	절강포정사(浙江布政使)	1	1
브레튼(Bredon, 중국이름 裴式模)	강해관세무사(江海關稅務司)	1	1

출처: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王尔敏, 『上海格致书院志略』, 刘明, 『格致书院课艺研究』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출제자들의 직함은 대부분 총독·대신·관도·안찰사·도대·총판·포정사·태도·세무사·비도·안찰사 등 당시 양무 사업의 중요한 관료들이었다.²³⁾ 청대의 전통적인 세관제도는 월해관(粵海關)·민해관(闽海關)·절해관(浙海關)·강해관(江海關) 등 연해와 내륙의 각관(樞關)으로 구성된다.²⁴⁾ 이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요 기관으로 대부분 연해, 운하의 주요 상업 요지에 위치한다. 특히 2차 아편전쟁 이후 청 정부는 전면적인 통상개방 국면에 대응하고 각 관(關)의 서양 세무사의 권력운용을 감독하기 위해, 통상 지역의 행정조직을 조정하면서 도원(道員)이 세관을 겸직하게 하였다. 이에 세무사와 세관감독은 관세징수를 공동으로 감독하게 되었다.²⁵⁾ 이처럼 청말 중국에 세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도대(道臺)들도 많이 생겨났다. 세관 관리를 담당하는 도원들은 세금을 거두는 것 외에도 대외교섭을 담당했기 때문에 자금도 많았고 또한 양무관계도 밀접했으므로 후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관은 당시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양무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양무사업의 가장 중요한 경비 출처 기관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875년 9월 설립기금 가운데 양무관료들이 기부액은 총금액의 73.4%[은], 40.9%[洋元]를 차지했고, 소송태명비도 풍준광, 직례총독 이홍장, 양강총독 이종희 세 명이 기부한 것은 전체의 75.5%[은]를 차지했다. 이로 볼 때 당시 세관과 양무사업 간의 긴밀한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 말의 세관은 권력과 자금이 집중된 곳이었다. 상하이를 예로 들자면, 상하이 도

23) 도대: 총독, 순무(巡撫, 한 성의 군정, 민정을 관리하던 대관)와 지방관 사이의 관원. 일반적으로 포정사와 안찰사의 부수(副手)로서 양식과 수하(水河) 등을 관리했으며, 도원(道員)이라고도 함. 관도·태도·비도는 청대 해관업무를 관리하던 도원을 말함. 총독: 청대 성의 일급관원 중에 가장 높은 직위로서 한 개 혹은 여러 개 성의 군정을 맡았다. 청대는 9개 총독(직례총독·양강총독·兩廣총독·湖廣총독·閩浙총독·四川총독·陝甘총독·雲貴總督·東三省總督)을 두었다. 총판: 청말 중앙과 지방에 설립하여 정례업무를 처리하던 임시상설기구로서 북양정부시기에도 있었다. 포정사: 청대 총독, 순무의 속관으로 한 성의 재정·세금·인사를 관리했다. 안찰사: 청대에 사법과 형명을 관리했고, 포정사와 함께 ‘兩司’라 불림. 총독(혹은 巡撫), 포정사, 안찰사를 ‘삼대헌(三大憲)’이라고 불렀다.

24) 樞關: 수륙 교통 요지와 상품거래 밀집지역에 설립하여 세금징수와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초관(鈔關), 상관(常關)이라고도 함.

25) 濱下武志 著, 高淑娟·孫彬 譯, 『中國近代經濟史研究: 清末海關財政與通商口岸市場圈』,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6년, 345쪽.

대는 강남제조국 및 윤선초생국(輪船招生局), 상해직포국(上海織布局) 등의 신식기구나 기업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권력은 민정·군사·세관·양무 등 여러 사업을 포괄하였고 “동남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가 되었으며,²⁶⁾ 이들 간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상하이 관도의 출제자를 볼 때, 대부분 이홍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소우림은 이홍장의 친척이고, 공조원은 이홍장과 안휘성 동향의 친구이며, 설복성과 주복은 이홍장의 막료였으며, 오인손과 호을분은 이홍장의 안후이 동향 사람이며, 이정영은 이홍장과 사촌 동생이고, 섭집규는 증국번의 사위이자 이홍장과 긴밀한 관계였고, 류린상은 이홍장의 후배이자 장기간동안 강남제조국 총판에서 근무했다.²⁷⁾ 이홍장이 강남제조국을 총괄할 당시 이처럼 격치서원의 고과를 위해 출제한 관료 사대부들은 대부분 이홍장을 중심으로 한 인맥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적네트워크는 격치서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였고, 격치서원의 고과가 진행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 수상자의 상황

전통서원의 학습 평가는 서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부시험방식(內課)이었지만 격치서원의 고과는 외부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방식(外課)이었다. 그리고 출제 내용, 응시자의 범주, 작성스타일 등은 기존 전통서원과 많이 다르며, 응시자의 신분·관직·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내용의 우열만을 논한다고 정관에 제시하고 있다.

『격치서원과예』에 실린 격치서원의 고과는 1886년-1894년까지 총46회에 걸쳐 총88문제가 출제되었고, 우수수상자 총88명의 총345편의 글이 실렸다. 첫째, 88명 우수자의 관적의 분포를 보면, 장쑤(36명), 상하이(5명), 저장(15명), 안후이(6명), 광둥(5명), 후난(3명), 푸젠(2명), 텐진·허난·산둥(각1명), 불상(13명)이다.²⁸⁾

관적이 불분명한 13명을 제외하고 75명의 수상자는 10개 성(시)의 출신이다. 이 가운데 장쑤, 저장 출신이 총56명(상해현 포함)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허난, 후난을 제외하고 모두 연해 지역이다. 이러한 특징은 서학 전파의 지리적 경로를 엿볼 수 있으며, 양무, 변법시기 서학의 전파에 중심에 있었던 교회서원의 지역별 분포 및 설립 활동시기 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드러난다. 만청에서 민국 초까지 설립된 교회서원은 약120개 안 밖인데 이 가운데 푸젠·마카오·상하이·저장·홍콩·광둥·장쑤 등 동부 연안 지역이 전체의 약60%를 차지했다. 또한 교회서원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1861년-1900년)는 격치서원의 설립(1874년-1910년 전후), 활동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2차 아편전쟁 이후부터 서원개제(1901) 전후이다.²⁹⁾ 이 가운데 광

26) 梁元生, 『上海道臺研究: 轉變中之關係人物 1843-189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년 21쪽.

27) 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 以『格致書院課藝』爲中心」, 152쪽 참고.

28) 장쑤: 許玉滿·崔昂來·許庭銓·鐘天緯·張涵中·趙元益·孫景康·朱昌鼎·劉翰飛·程起鵬·鄭其裕·陶師韓·蔣同寅·華國治·楊選青·孫廷璋·于邕·楊家禾·俞贊·程延杰·羅毓林·劉邦俊·董琪·胡永吉·黃潤章·錢文霽·胡家鼎·李元鼎·潘敦先·蔣寶豐·吳佐請·褚桂山·朱其鑒·劉祖培·李鼎元. 상하이: 秦錫田·李安邦·朱澄叙·項文瑞·朱有濂·金元善. 저장: 吳昌綏·王恭壽·車善呈·許克勤·王輔才·朱正元·葉瀾·葉瀚·項藻馨·錢大受·柯來泰·孫兆熊·陳漢章·劉富槐·許渠斤. 안후이: 張玠·左忠訓·程瞻洛·單秉鈞·李國英·李經邦. 광둥: 楊毓輝·李鼎頤·王襄·楊史彬·梁揆平. 후난: 彭瑞熙·葛道殷·黃雲藻. 푸젠: 林季賢·陳翼爲. 텐진: 邵邵曾. 허난: 邵慕堯. 산둥: 孫維新. 불상: 王志中·啟之巧·華國盛·錢清臣·錢志澄·程昌齡·歐陽驥·王益三·彭壽人·楊毓煌·張鳳翥·沈尚功·張駿聲.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98-301쪽,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爲例』, 289-292쪽;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69-72쪽;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37-38쪽 등 참고.

29) 교회서원의 지역적 분포에 관한 내용은 「상하이 中西書院과 ‘中西并重’의 함의」, 『중국학논총』, 제59집, 2013년, 200-206쪽 참고.

서연간(1875년-1908년)은 교회서원, 신식서원, 양무학당 등 중국의 교육기구가 서학에 대한 전파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과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관적이 실제 거주지역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은 상하이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이는 상하이가 근대 서학동점의 주요 근거지이자 서학이 연해지역을 통해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수상자의 신분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⁰⁾ 부학(府學)·현학(縣學)학생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료출신 9명, 신식학교 출신 8명, 공생(貢生)·감생(監生) 출신 8명, 거인(舉人) 출신 7명, 문생(文生) 출신 2명의 순이다.³¹⁾ 전통교육을 받은 부학·현학학생이나 거인·공생·감생·문생은 69명으로 약80%정도를 차지하며, 관료출신과 신식학교 출신은 각각 약10%에 정도에 불과 한다. 이는 양무시기 서학의 유입으로 인해 전통지식체계가 변화하면서 서학의 지식체계를 수용하고자 한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서학 내용이 이미 전통서원의 지식인 교육에도 침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수상자와 문장편수의 관계를 보면, 35편(楊毓輝), 22편(鍾天緯), 16편(許克勤), 15편(李鼎頤), 14편(王輔才·葉瀚), 12편(殷之輅·李經邦), 9편(胡永吉), 7편(陶師韓·項藻馨·潘敦先), 6편(程瞻洛·胡家鼎) 등 총345편의 88명이다.³²⁾ 수상자와 수상횟수의 관계를 보면, 16회(鍾天緯), 15회(楊毓輝), 7회(李鼎頤), 6회(殷之輅·許克勤·李經邦), 5회(張玠·王輔才·葉瀚), 4회(朱昌鼎·項藻馨) 등이다.³³⁾

30) 현학학생(39): 彭瑞熙·吳昌綏·王恭壽·翟昂來·許庭銓·秦錫田·趙元益·張玠·孫景康·龔雲藻·劉翰飛·李安邦·陶師韓·蔣同寅·朱澄叙·李鼎頤·許克勤·單秉鈞·華國治·王襄·王輔才·李國英·于鬯·俞贊·程延杰·朱正元·林季賢·葉瀚·董琪·錢文需·李元鼎·潘敦先·楊史彬·褚桂山·吳佐請·陳翼爲·劉富槐·劉祖培·許渠斤. 부학학생(13): 許玉瀛·鄒邵曾·朱昌鼎·孫維巧·項文瑞·李經邦·劉邦俊·葉瀚·項藻馨·錢大受·胡永吉·黃潤章·孫兆熊. 관료(9): 鍾天緯(五品銜廣東候選縣丞)·張玠(候補知縣)·朱昌鼎(藍翎五品銜候選直隸州通判)·鄭其裕(華亭縣職監)·楊毓輝(五品頂戴)·俞贊(五品實錄館議叙通判)·朱有濂(候選郎中)·潘敦先(中書科中書銜)·車善呈(湖北機器局委員·浙江鎮海縣職員·候選縣丞). 신식교육기구수료자(8): 項藻馨(격치서원수료)·孫兆熊(광방언관수료)·李元鼎(광방언관 학생)·歐陽驥(격치서원·동문관貢生)·宗천위(광방언관·강남제조국번역 수료)·조원익(江南製造局翻譯館)·翟昂來(광방언관)·朱正元(광방언관·동문관). 貢生·監生(8): 張涵中·左忠訓·楊毓輝·孫廷璋·規家鼎·歐陽驥·柯來泰·李經邦. 舉人(7): 楊選青·張騷聲(1893)·陳漢章(1888)·李鼎元·조원익(1888)·李元鼎(1889)·蔣寶豐(1894). 文生(2): 金元善·楊毓煌. 그러나 신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項藻馨은 항주부학학생이자 격치서원 출신이기도하며, 조원익은 신양현(新陽縣) 학생이자 격치서원 출신이며, 종천위는 관료(廣東候選縣丞)이자 신식학교(광방언관·강남제조국번역) 출신이기도하며, 楊毓輝는 관료이자 대포현(大埔縣) 공생이다. 이 외에도 張玠(현학학생, 관료), 李經邦(부학학생, 공생) 등이 이렇하다. 이동에 따라 여러 개의 신분이 중복되므로 모두 넣었다. 이상 수상자의 신분 관련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98-301쪽, 郝秉鍵·李志軍, 『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 以上海格致書院爲例』, 289-292쪽; 王爾敏, 『上海格致書院志略』, 69-72쪽;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37-38쪽 등 참고.

31) 貢生: 향교의 학생. 監生: 明·청시기 최고학부인 국자감의 학생. 舉人: 明·청시기 과거시험 중에서 향시에 급제한 사람. 文生: 明·청시기 주부현(州府縣)에 설립한 공립학교(‘文庫’라고도 함)의 생원.

32) 5편(8명): 張玠·許庭銓·朱昌鼎·孫維新·孫兆熊·朱其均+金·劉富槐·劉祖培. 4편(7명): 車善呈·蔣同寅·李元鼎·楊史彬·陳漢章·李鼎元·許渠斤. 3편(11명): 朱澄叙·歐陽驥·李國英·朱正元·林季賢·葉瀚·柯來泰·彭壽人·錢文需·張鳳翥·陳翼爲. 2편(15명): 彭瑞熙·王恭壽·翟昂來·葛道殷·趙元益·于鬯·項文瑞·楊家禾·俞贊·錢大受·董琪·金元善·楊毓煌·沈尚功·梁揆平. 1편(33명): 許玉瀛·王志中·吳昌綏·張涵中·秦錫田·孫景康·鄒邵曾·龔雲藻·劉翰飛·左忠訓·邵慕堯·李安邦·華國盛·錢清臣·程起鵬·鄭其裕·錢志澄·程昌齡·單秉鈞·華國治·王襄·楊選青·孫廷璋·朱有濂·程延杰·羅毓林·王益三·劉邦俊·黃潤章·蔣寶豐·吳佐請·褚桂山·張駁聲. 관련 자료는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39-40쪽 등 참고.

33) 3회(6명): 許庭銓·車善呈·陶師韓·孫維新·胡永吉·潘敦先. 2회(12명): 彭瑞熙·王恭壽·翟昂來·葛道殷·趙元益·蔣同寅·程瞻洛·柯來泰·彭壽人·胡家鼎·孫兆熊·楊史彬. 1회(59명): 許玉瀛·王志中·吳昌綏·張涵中·秦錫田·孫景康·鄒紹曾·龔雲藻·劉翰飛·左忠訓·邵慕堯·李安邦·華國

총88명 가운데 약10%를 차지하는 신식학교 출신 종천위(22편)·항조형(7편)·손조웅(5편)·이원정(4편)·구양기(3편)·주정원(3편)·조원익(2편)·적양래(2편) 8명의 문장은 총345편 가운데 약14%를 차지하는 48편이다. 대부분 양무학당인 서양언어를 배우고 번역을 하는 강남제조국, 광방언관, 동문관에 종사했으며, 이 가운데 격치서원 학생은 2명(항조형, 구양기)뿐이다. 또 10편 이상 수상한 양육휘·종천위·허극근·이정이·왕보재·섭한·은지락·이경방 8명의 글이 총140편에 이르며 수상자의 10%도 안 되지만 총345편 가운데 약41%의 글을 수상하였다. 한편 약10%에 해당하는 5회 이상 수상자 9명(종천위·양육휘·이정이·은지로·허극근·이경방·장개·왕보재·섭한)이 총71회를 수상하여 총181회의 40%를 차지했다. 즉 10편 이상과 5회 이상의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종천위·양육휘·허극근·이정이·왕보재·섭한, 은지로·이경방 8명이다. 이들은 격치서원 고과의 중심 지식인이며 이 가운데 종천위, 항조형 2명만이 신식교육기구 출신이다.

이처럼 전통교육 출신에 비해 신식교육 출신이 적은 이유는 당시 교육기구는 전통서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에 따라 전통 지식을 배운 지식인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양무 시기는 서학의 수용과 전파, 양무 인재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지만, 그 안에는 ‘중체서용’, ‘사이제이(師夷制夷)’ 등의 관념을 활용한 전통서원의 변화와 전통학문체계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격치서원은 양무인재의 양성과 서학의 전파 및 전통학문체계의 변화를 추구한 매커니즘이며, 고과는 그 중심 활동[제도]이 되었고, 고과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향후 서학수용과 전파의 중심에 서서 양무, 변법 활동에 참여하였다.

3) 수상자의 향후 활동

양무파 관원들은 격치서원의 고과를 통해 서학의 전파와 양무 인재를 발굴하고자 했고, 이렇게 양성된 지식인들은 실제로 양무, 변법운동에 참여하였다. 위 수상자들의 향후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³⁴⁾

<표2> 1886년-1894년 격치서원 고과 수상자의 향후 활동 상황

인물	활동내역	활동성격
왕강년(汪康年)	몽학회결성, 『몽학보』, 『중외일보』편집	매체, 학회
허극근	『몽학보』편집	매체
동강(董康)	역서공회(譯書公會)결성, 『역서공회보』편집	매체, 학회
저계산(褚桂山)	『신시무통고(新時務通考)』, 『황조경세문편속집(皇朝經世文編續集)』편찬	매체
적양래	『경세보』, 광방언관, 주영 중국대사관 번역관	매체, 교육, 양무
종천위	신강아집회(申江雅集會)·자립회(自立會)설립, 『시무보』기고, 상해삼등공학·상해광방언관·상해강남제조국번역관근무, 성선회·장지동과 한양철성(漢陽鐵城)창립, 광물학당·자강학당운영, 우로광학당(于路礦學堂)·한양철창(漢陽鐵廠)·자강학당근무, 산동기계국건설계획참여, 『서국근사회편(西國近	매체, 학회, 교육, 양무, 독일유학

盛·錢清臣·程起鵬·鄭其裕·錢志澄·程昌齡·朱澄叙·單秉鉞·華國治·王襄·楊選青·歐陽驥·李國英·孫廷璋·于邕·項文瑞·楊家禾·俞贊·朱有濂·程延杰·羅毓林·王益三·劉邦俊·朱正元·林季賢·葉瀾·錢大受·董琪·金元善·黃潤章·錢文需·李元鼎·楊毓煌·蔣寶豐·張鳳翥·沈尚功·吳佐請·褚桂山·張駁聲·陳翼爲·陳漢章·梁揆平·朱其均+金·劉富槐·劉祖培·李鼎元·許渠斤. 관련자료는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98-301쪽;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39-40쪽 등 참고.
34)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41-44쪽; 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 以『格致書院課藝』爲中心」, 153-155쪽 참고.

	事汇编』등 서양서적 번역	
섭한	몽학회결성, 『몽학보』편집, 중국교육회, 후베이자강학당교원, 상하이에서 중국국회(中国国会)설립	매체, 학회, 교육, 정치
항문서(項文瑞), 진석전(秦錫田)	교육연구회	교육
항조형	『항저우백화보(杭州白话报)』창간, 저장구시서원(浙江求是书院)교원, 대청은행대리총판, 항저우안정학당(杭州安定学堂)관리	매체, 교육, 양무, 정치
조원익	역서공회결성, 『역서공회보』편집, 격치서원이사, 강남제조국 근무, 『서약대성(西药大成)』번역, 『법률의학』지음	매체, 학회, 교육, 양무, 번역, 영국·프랑스 등 유학
진의장(陳議章)	베이징대학 교수	교육
심육계(沈毓桂)	서양서적 번역, 『교회신보(教会新報)』편집, 중서서원설립, 교사	번역, 교육, 매체
정연걸(程延杰)	봉헌제오고등소학(奉賢第五高等小学)교장	교육
류부괴(劉富槐)	절강국자감조교	교육
갈도은(葛道殷)	몽섬감총독신(蒙陝甘總督臣)	양무
설복성	강남제조국, 격치서원 근무	양무, 영국·프랑스·벨기에·이탈리 해외양무사업
장개(張玠)	후베이직포국, 상하이기계제조국, 상하이직포국, 상하이누사국(上海縐絲局) 근무	양무
차선정(車善呈)	후베이직포국위원, 후선현승(候選縣丞), 황저우지부(黃州知府)	양무, 정치
정첨락(程瞻洛)	후선현승(候選縣丞), 강남제조국, 수뢰창(水雷廠)	양무
이경방	평텐(奉天)·지린 등에서 군사업무	양무
주정원	광방언관, 동문관, 장쑤후선주판(江蘇候選州判)	양무
오창수(吳昌綬)	북양정부사법부비서	정치
정기봉(程起鵬)	고현지사(皋縣知事), 강산현지사(江山縣知事)	정치
섭란(葉瀾)	일본에서 청년회 조직	정치
당재상	상하이에서 중국국회 설립	정치
오좌청(吳佐淸)	장쑤성자의국(咨議局)의원	정치

출처: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 以『格致書院課藝』爲中心」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재정리

<표2>에서 보이듯이, 수상자의 대부분은 양무, 변법운동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주로 매체·학회·교육·정치·번역·관료·양무기관·학당·유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근대 서학의 전파기제는 대체로 교회학교, 신식서원, 양무학당, 중서번역출판기구와 그곳에서 번역한 서학저작 및 신문매체들이다. 그러나 격치서원 고과에서 수상한 88명중에 교회학교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신식교육기구 출신은 8명에 달한다. 하지만 양무시기 교회학교나 신식교육기구의 학생 수의 규모는 기존의 전통교육기관에 비해 훨씬 적다. 숫자의 다소만으로 교회학교와 신식교육기구가 서학전파의 주요기구가 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구의 숫자로 보면, 당시 기존의 교육기구는 전통서원이 대다수였으므로 지식인도 서원 관련 출신들이 많았고 학문체계도 전통학문의 지식체계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전통교육기관 출신자들이 향후 양무, 변법 활동과 근대 교육, 매체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중국의 새로운 근대 사회와 학문의 변화에 일정정도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서학전파의 시작과 중심활동은 주로 중서학문의 결합을 추구한 교회서원이나 서양언어의 교육과 번역에 힘쓴 광방언관, 강남제조국 및 서학전파의 매개체인 『만국공보』·『신보』등의 매체 및 신식서원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이 양무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서학전파의 선두에 서있던 공로는 향후 근대 중국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추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활동내역을 보더라도, 다수가 신식서원과 매체, 양무, 학회, 정치, 교육 등에서 활동을 한 점은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사상변화 또는 서학전파에 있어 중요한 매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원의 개혁 면에서 볼 때, 격치서원, 구지(求志)서원, 박문(博聞)서원 등은 전통서원에서 신식서원으로 변화하면서 서학을 수용, 전파함과 동시에 전통지식체계의 변화를 도모해왔다. 이로 볼 때, 이들은 전통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한 지식인들이었으며, 격치서원의 고과는 서학전파와 전통지식체계의 변화에 중요한 추동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III. ‘격치’에 대한 인식과 지식생산면모

1. 서학의 범주와 ‘격치’

『격치서원과예(格致書院課藝)』에는 당시 일반지식인들의 서학에 대한 인식과 중서학술[격치]의 차이에 대한 관점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9년 동안 출제된 총88문제를 유형별로 볼 때, 양무(시무·부강·치술·국제정세 등)와 서학(또는 격치) 관련 문제들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³⁵⁾ 『격치서원과예』에 반영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서학이란 무엇인가이다. 1886년-1894년까지 출제된 총88문제 가운데 시무, 부강을 다룬 양무와 서학, 격치에 대한 문제가 대다수이다. 고과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서학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중국 사람은 심신성명과 삼강오상을 격치의 근원으로 삼는다. ……서양 사람들은 수학(水學)·화학(火學)·성학(聲學)·산학(算學)·전열학(電熱學)을 격치의 강령으로 삼는다. ……격치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평치를 이르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³⁶⁾

중국의 학문은 성리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으로 사장을 중요시하고 다음으로 경사·고거·여지·예악제도 및 병법음양·회계·법술·의술·점복·동식물 등 잡다하게 하나의 학문을 이루었지만, 기계의 중요함과 다르다. 서방 각국의 학문은 다양하다. 천문·지리·기계·역산·의학·화학·광물·중력·광학·열·음성, 각종 전기학 등은 실험을 통해 명확한 파악을 하며 헛된 이론과 다르다. 그러나 격치학문이 생긴 이후로 모든 것을 망라하여 옛사람들의 조리 없고 난잡한 것이 사라져 중외 학문이 합쳐져 하나로 껴어지게 되었다.³⁷⁾

35) 쑹웨이즈(熊月之) 선생은 인재·시무·과학·경제·사론(史論)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왕얼민(王爾敏) 선생은 크게 격치 22개, 어문 2개, 교육 4개, 인재 4개, 부강치술 25개, 농산수리 4개, 사회경제 2개, 국제상황 3개, 변방 6개, 기타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王爾敏(2018), 『格致書院志略』, 香港中文大學出版社, 56-69쪽.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93-297쪽.

36) “中人以身心性命三綱五常爲格致之根源, ……西人以水·火·光·聲·音·化·算·電熱爲格致之綱領, ……由格致而漸臻於平治無難也.” 趙元益答卷, 『格致書院課藝』.

37) “中國學問最重性理, 次重詞章, 次則經史·考據·輿圖·掌故以及韜鈴術數·會計·申韓·醫卜·青鳥, 無不雜然成家, 然尤不如制藝之重. 泰西各國學問, 亦不一其途, 舉凡天文·地理·機器·歷算·醫·化·礦·重·光·熱·聲·電諸學, 實試實驗, 確有把握, 已不如空虛之談談. 而自格致之學一出, 包羅一切, 舉古人學問之蕪雜一掃而空, 直足合中外而一貫.” 王佐才答卷, 『格致書院課藝』, 第1冊.

서학의 범주를 크게 수학(水學)·화학(火學)·성학(聲學)·산학(算學)·천문·지리·기계·의학·광물·전기 등 자연과학으로 보고 있으며, 좁게는 격치, 기예(技藝)라는 용어와 등치하고 있다. 중국의 격치는 유가의 도덕관념의 삼강오륜을 근원으로 하고, 서양은 수학(水學)·화학(火學)·성학(聲學)·산학(算學)을 격치의 강령으로 한다고 보았고, 서학의 격치, 기예학문을 배우고, 공답하고 추상적인 전통적인 학문방법에서 벗어나야 부강과 평치(平治)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격치서원과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의 서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서학 범주는 대부분 격치학, 즉 서방의 자연과학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 서의 격치는 어떻게 다른가. 이에 앞서, ‘격물치지’의 약칭으로 쓰인 격치의 내용이 처음 보이는 『대학』경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물(物)에는 본말이 있고 사(事)에는 종시가 있으니, 선후를 가릴 줄 알면 도에 가깝다. 옛날에 천하에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루었다. 그 마음을 바루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극진하게 이르게 하였으니, 지식을 극진하게 이르게 한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극에 까지 이르는 데 있다. 사물의 이치가 궁극에 까지 이른 뒤에 지식이 극진하게 이르게 되고, 지식이 극진하게 이른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태평해진다.³⁸⁾

요약하자면, 지식을 이루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극에까지 이르는 데 달려있고, 사물의 이치가 궁극에까지 이른 뒤에야 지식이 그에 따라 이르게 되니, 이것을 일러 지식이 극진한 데 이르렀다는 것이다. 선유들의 격물치지의 대상[‘물’]은 ‘천하·국·가·신·심·의’이며, 이에 대해 궁극에까지 이르러야[‘격물’] ‘평·치·제·수·정·성’의 이치를 아는 경지[치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격물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의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로써 만물의 이치에 통하게 되고, 만물의 이치에서 나아가 천하의 이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物格而後知至] 그러므로 치지는 반드시 먼저 격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致知在格物].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선후[본말, 종시]를 잘 알면 도에 가까운 것이니, 바로 격물치지는 이러한 ‘의리(義理)’를 밝히고자 함이며, 그 ‘의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치국평천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물치지에 대한 이해는 격치서원 고과에 참여한 지식인들에게도 많이 보인다. 그 중 일례를 들면, 주징서(朱澄叙)는 “선유들의 격치에 대한 노력은 천하·국·신·심·의가 즉 ‘물’임을 밝게 밝히는데 있다. 치지의 노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격물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의 사물의 이치에 나아가 그로써 만물의 이치에 통하게 하고, 만물의 이치에 나아가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지는 반드시 먼저 격물을 해야 한다.”³⁹⁾라고 했다. 『대학』의 의미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38) “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物格而後知至，知至而後意誠，意誠而後心正，心正而後身修，身修而後家齊，家齊而後國治，國治而後天下平。” 성백효, 『대학·중용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14, 32-34쪽 참고.

39) “先儒格致工夫，明指天下國家身心意，即是物，致知工夫即在此處。其所以必先格物者，蓋即一物之理，以通萬物之理；即萬物之理，以窮天下之理。是致知必先格物也。” 朱澄叙答卷, 『格致書院課藝』第4冊.

2. 중, 서 격치에 대한 이해

고과에서 격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주로 ‘중서 격치학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1889년 봄 특과(特課)에서 북양대신 이홍장은 “『대학』의 격치에 관한 설은 정강성(鄭康成: 후한의 유학자 鄭玄)을 위시하여 수십 곳이 있는데 최근의 서학과 일치한가?”⁴⁰⁾라고 출제하였다. 이에 대해 장동인(蔣蔣寅)·왕좌재(王佐才)·주징서(朱澄叙)·종천위(鍾天緯)·팽서희(彭瑞熙) 등은 중서 격치의 차이를 ‘도예(道藝)’, ‘의리(義理)’, ‘존고박금(尊古薄今)’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⁴¹⁾

(유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격치는) 바로 의리(도리의 이치)의 격치를 말하는 것이지 물리(물질의 이치)의 격치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도를 중하게 여기고 기예를 가볍게 여긴다. 모든 인륜과 법도, 예악과 교화에 있어 정미함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⁴²⁾

격치의 학문은 중국과 서양이 서로 다르다. ……중국은 도를 중시하고 기예를 가볍게 여겼으므로 그 격치는 오직 의리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 한편 서양의 경우는 기예를 중시하고 도를 가볍게 여겼으므로 그들의 격치는 물리적 측면으로 편중된 것이 많다. 이것이 중서 격치의 차이이다.⁴³⁾

요약하여 말하자면, 중국의 풍기는 도를 중시하고 예를 가볍게 여긴다. 서양의 분위기는 예를 중시하고 도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자고이래로 치란안위는 도의 성쇠에 달렸지 기예의 공졸과는 관계가 없다. ……인륜법도, 예악교화는 결국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되니, 하루라도 없을 수 있겠는가?⁴⁴⁾

중국에도 격치가 있고 서양에도 격치가 있으며, 양자의 차이를 ‘도’와 ‘예[혹은 器라고도 함]’로 나누었다. 도와 예에 대한 해석을 보면, “형이상적인 것을 ‘도’라하며 형이하적인 것을 ‘기(器)’라 한다. ‘도’란 형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과 기본 원리를 말한다. 반면 ‘기’는 형체로 볼 수 있고 주체적 감각이 감지할 수 있는 물질적 물건을 뜻한다.”⁴⁵⁾ ‘도’와 ‘기’를 내재적 정신과 외재적 물질로 구분하여, 도는 인륜도덕, 교화의 이치를 의미하며, ‘예’는 외부 사물의 이치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의 격치가 추구하는 원리는 인륜도덕의 내재된 이치, 즉 ‘의리’이므로 ‘의리의 격치’라고 한다면, 서양의 격치가 추구하는 원리는 외부사물 자체의 원리, 즉 ‘물리’이므로 ‘물리의 격치’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도를 보다 중시하여 ‘중도경예(重道輕藝)’의 특징을 지니고, 서방

40) “『大學』格致之說自鄭康成以下，無慮數十家，與近今西學有偶合否？”『格致書院課藝』，郝秉健·李志軍，2005，294쪽.

41) 왕좌재와 종천위는 동일한 인물이다. 왕좌재는 격치서원 시험에 응시할 때 鍾天緯·李龍光·商霖·李培禧·朱震甲 5개의 필명을 사용하였다. 薛毓良, 『鍾天緯傳』,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1, 55쪽. 본고에는 『격치서원과예』에서 인용할 때 명기된 그 이름을 쓴다.

42) “(儒家所謂之格致)乃義理之格致，而非物理之格致。中國重道輕藝，凡綱常法度禮樂教化，無不闡發精微，不留餘韻。”王佐才答卷, 『格致書院課藝』，第4冊.

43) “格致之學，中西不同。……蓋中國重道而輕藝，故其格致專以義理爲重。西國重藝而輕道，故其格致偏於物理爲多。此中西之所以有分也。”鍾天緯答卷, 『格致書院課藝』，第4冊.

44) “總而論之，中國之風氣重道而輕藝，西洋風氣重藝而輕道，然自古至今，治亂安危恒系乎道之隆污，不系乎藝之巧拙。……至於綱常法度禮樂教化，終爲至天下之本，其可一日少乎？”彭瑞熙答卷, 『格致書院課藝』.

45) “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道是不能見諸於形體只能靠抽象思維把握的事物的本質和根本原理，而器是見諸於形體的可以爲主體感官感知的物質性物件。”盧勇, 「從體用分到文野之別: 試論近代主流學問觀的嬗變」, 胡春惠·薛化元, 『中國知識分子與近代社會變遷』, 珠海書院亞洲研究中心, 2005, 180쪽.

은 기예를 보다 중시하여 ‘중예경도(重藝輕道)’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말하는 ‘격치’는 외부형체가 있는 사물을 관찰하여 군신·부자·부부·형제간의 인륜 대도의 의리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리는 인간의 윤리적 질서에서 체현되는 의리이며, 학문의 궁극적인 본원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중국의 격치는 인륜과 법도, 예악과 교화 등을 잘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치국평천하의 의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강치도·치란안위 등은 천하의 근본이자 격치의 근본이며, 이는 도의 성쇠와 관련된 것이지 기예의 공졸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크게 『대학』의 격치의 의미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중서의 격치를 ‘의리’와 ‘물리’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격치에 대한 학문적 범주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문에서 보았듯이 “중국 사람은 심신성명과 삼강오상을 격치의 근원으로 삼고, 서양 사람들은 수학(水學)·화학(火學)·성학(聲學)·산학(算學)·전열학(電熱學)을 격치의 강령으로 삼는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격치는 심성·치란·인륜·제도 등을 겸한 자연철학에 가까운 의리의 학문이지만, 서양의 격치는 주로 실험·측량·천문·분석을 중시하는 자연과학에 가까운 기수(器數)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서의 격치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전통적인 학술정신에 근거하여 ‘도와 예’, ‘의리와 물리’와 같은 이분법적 도식으로 요약한 것이며, ‘중도경예’, ‘중예경도’로 개념화한 것 역시 중국의 전통지식 체계로부터 서학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중도경예’, ‘중예경도’, ‘의리와 물리’ 등의 차이를 가져온 배경을 중, 서의 학술관념과 학문태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중국과 서양이 서로 합해지는 것은 우연한 자취이고, 합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추구하는 방향에서 드러난다. 그 원인을 보면, 중국의 경우 항상 옛 것을 높이고 지금의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따라서) 절대 고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늘 정해진 법칙을 고수하면서 변통을 모른다. (하지만) 서양인의 경우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옛 것을 싫어하며 학문에는 후자가 더 낫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늘 앞 사람을 뛰어넘고자 하면서 힘써 실재를 구한다. 이 점이 중서 격치가 나뉘는 지점이다.⁴⁶⁾

중국은 고대 성현들의 뜻을 높이고 전통학문인 경(經)을 중시한다는 학술관념을 추구하므로 ‘존고박금(尊古薄今)’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기존의 틀을 지키고[墨守成法]’ ‘변화할 줄 모르는[不知變通]’ 학술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서양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성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과 옛 것, 수구(守舊)와 변화, ‘존고박금(存古薄今)’, ‘희신염구(喜新厭舊)’ 등의 가치취향으로 도식화하는 것 역시 중국 전통학문의 인식 틀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왜 서양의 격치를 배우려고 하는가이다. 적양래(翟昂來)와 양육휘(楊毓輝)는 서학[격치]을 공부하는 목적은 부강과 평치에 있으며, 격치학은 바로 부강평치를 이루기 위한 학문이라고 했다.

중국은 왜 다른 대국들에 필적하지 못하는가? 격치학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부강해지려면 반드시 먼저 격치에 힘써야 한다. 사농공상 모두 반드시 그 분야의 학문에 정통하고 그 분야의 기예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또한 부강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을 힘써 제거한 다음에야 부강을 논할 수 있다.⁴⁷⁾

46) “中西相合者系偶然之迹，中西不合者乃趨向之歧。此其故由於中國每尊古而薄今，視古人爲萬不可及，往往墨守成法而不知變通。西人喜新而厭故，視學問爲後來居上，往往求勝於前人而務求實際。此中西格致之所由分也。”王佐才答卷，『格致書院課藝』第4冊。

47) “中國不能與各大國相抗衡者，何哉？格致之學不行也。欲求富強，必先格致。士農工商，須各精其學，

중국에서는 왜 서학을 추구하는가? 크게는 부국이고 작게는 강병이며, 크게는 나라의 흥차대신이나 외교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고 작게는 교사, 관리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이다.⁴⁸⁾

서학을 배워야하는 목적은 ‘부강’과 ‘평치’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격치학을 배워야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반영된 전통적인 격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격치학문의 수용을 통해 강국부민을 이루고자 한 것은 격치서원 고과에 참여한 일반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위원·풍계분·왕도 등 당시 대표적인 양무지식인들도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인식이다. 격치서원의 고과를 출제한 사람들은 거의 양무관료이자 양무파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선 그들의 관점이 응시자인 일반지식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격치서원 고과에서는 크게 볼 때, 서학을 격치와 등치시키면서 부강치민을 이루고자 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중서 격치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설사 서학동점의 위기 속에서 대응과 자위(自衛) 및 보존(保存)의 측면에서 사고한 결과라 하더라도 ‘도예(道藝)’, ‘의리(義理)’, ‘존고박금(尊古薄今)’ 등의 이분적인 비교방식은 중국 전통학문의 인식 틀에서 바라보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3. 격치의 학술적 의미

격치의 목적은 부강이고 부강하려면 먼저 서학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서학 수용의 문제로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전통학문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는 일종의 ‘학(學)’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강치술은 정치·군사적 영역의 의미도 있지만 학술·문화 영역의 의미도 있다. 당시 양무 지식인들은 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후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학을 배워야하는 목적인 부강치술의 관건은 격치학을 배우는 것이며, 중국 사회가 서양 대국들에 필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격치학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본 것이다. 따라서 학술적 의미에서 부강치술의 방식은 서학을 수용함과 동시에 전통학문방법 및 태도에 대한 재인식도 자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과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청대의 실사구시의 실학정신과 격치를 연결하여 사고하면서 전통학문방법에 대한 재인식과 폐단을 지적하였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학문이 있다. 하지만 백 개의 실제 없이 빈 것(虛)은 하나의 실제(實)만 못하고 백 개의 허위(僞)는 하나의 진실(眞)만 못하다. 이것이 큰 차이이다. ……격치학자들은 일들마다 실사구시하고 하나하나 본원을 추구하며 조물주가 누설하지 않은 비밀을 발견하고 성인들이 전수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학문이 생기고부터 모든 군사, 농업, 예법과 음악, 정치, 형사 등의 교화가 이런 격치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이로써 나라가 부강하지 않을 수 없고 군대가 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익이 흥하지 않을 수 없고 폐단이 제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⁴⁹⁾

중국에도 천문, 산술에 대해 잘 알고 열심히 탐구한 사람이 대대로 적지 않다. 하지만 명말 이후 성명(性命)에 대한 공론만을 밝히고 실학에 힘쓰지 않음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점점 쇠퇴하였고, 그래서

各專其藝，而更嚴絕夫不富不强之本，然後富强可言。”課翟昂答卷，『格致書院課藝』。

48) “中國之講求西學，何哉？將欲上以之富國，下以之强兵，大以之培欽差理事之才，小以之收教習司事之效。”楊毓輝答卷，『格致書院課藝』。

49) “天下之學術無窮，然百虛不如一實，百僞不如一眞，此其大較也。……蓋格致學者，事事求其實際，滴滴歸其本源，發造化未泄之苞符，尋聖人不傳之墮緒。……自有此學而凡兵農禮樂政刑教化，皆以格致爲基，是以國無不富而兵無不强，利無不興而弊無不剔。”王佐才課卷，『格致書院課藝』第1冊。

서양인이 일어나 그 쇠미해짐을 이어 굳건하게 (자신들만의) 다름을 이루었다.⁵⁰⁾

중국의 인륜도덕을 강조하는 성리학문이나 성명을 중시하는 명대 심학의 문제점은 실체가 없이 공담에 그쳐, 본원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학은 보다 ‘허’에 치중하고 서학은 보다 ‘실’에 치중하며, ‘허’는 주로 성리, 사장의 학문 방법과 태도를 의미하고 ‘실’은 격치, 기예의 학문 방법과 태도를 가리킨다. 특히 명말 이후 학문이 공론만을 밝히고 실학에 힘쓰지 않아서 중국의 격치학은 점점 쇠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와 ‘실’이라는 틀을 가지고 크게는 중서학 학문방법의 차이를 개괄하였고, 작게는 선진시기 유학에서 송대 성리학, 명대 심학까지 이어오는 ‘의리’의 격치와 청대 실학에서 반영된 ‘물리’의 격치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즉 본원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을 가지고 서학을 배우고 연구할 때 부강치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격치와 부강의 관계를 학술적인 면에서 중국의 실학정신과 연관하여 설명하는 한편 실학의 범주에 서학을 포함시키고 중국 전통학문인 실학이란 이름으로 서학을 제창한 것이다.⁵¹⁾

이처럼 학술적 차원에서 볼 때, 당시 격치에 대한 이해는 중국 학술의 연속성을 지닌다. 당시 ‘의리의 격치’에서 점차 ‘물리의 격치’로 변화해 가는 과정은 송대 성리학, 명대 심학, 청대 실학 등과 연관하고 있다. 이를 테면 격치의 의미가 인문(자연)철학에서 자연과학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과정은 『대학』의 ‘격물치지’에서 대한 송대 이후 학자들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송대 주희는 격물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로써 지식을 지극한데 이른다.’라고 풀이했다.⁵²⁾ 격물치지의 궁극적인 지점은 외부 자연의 사물과 인간 내부의 도덕에 나타난 이념과 규율, 즉 ‘도’, ‘의리’를 함께 탐구하는 것이므로, 인륜도덕과 평치의 ‘의리’에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의리’는 서양과학처럼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물리’와는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 후 명말 서양선교사들이 서방의 자연과학을 중국에 도입하면서 중국의 ‘격치’를 일종의 서양의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중국의 격치와 서양의 격치를 연결시키려는 이론적 근거와 배경이 된 것이다.⁵³⁾ 그 후로도 청대 실사구시의 실학정신과 진위를 논하고 분석하려는 고증학에서 격치의 학문 방법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다.

이처럼 고과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청말 이후 더욱 거세진 서세(西勢)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응과 보호의 차원에서 서학을 수용하고 동시에 전통문화를 재인식하고 정립하려 했다. 따라서 서양의 근대 과학과 중국의 전통 격치학 간에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식인들은 중국의 학문적 틀과 시각으로 중서 격치의 내적 연관성을 계속 찾아갔던 것이다. 즉 지적 관심을 과거의 ‘의리’에서 ‘물리’로 옮겨가면서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학문방법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상, 지금까지 중서 격치에 관해 논의되었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중서 ‘격치’에 대한 관점

중	관점					학문적 범주	
	중도경예	의리	허	존고박금 (尊古薄今)	묵수성법 (墨守成法)	자연철학(‘의리의 격치’)에서 점차 (‘물리의 격치’)로 인식의 전환	자연과학

50) “天文算數之學，吾中土講明而切究者，代不乏人。自明季空談性命，不務實學，而此業遂微，於是西人起而承其衰，不得不矯然而自異矣。”王輔才答卷，『格致書院課藝』。

51) 王爾敏，「晚清實學所表現的學術轉型之過渡」，『中央研究院近代史所集刊』第52期 참고。

52) “訓物爲事物，訓格爲至，訓知爲識，訓致爲推極。”

53) 관련 내용은李志軍，「格致書院與實學教育」，『清史研究』，8月，1999，46-47쪽. 葛榮晉，「程朱的格物說與明清的實測之學」，『中國哲學』，第12期，1998，92-96쪽.

서	중예경도	물리	실	희신염고 (喜新厭古)	무구실제 (務求實際)	자연과학(일부 과학기술 포함)
---	------	----	---	----------------	----------------	------------------

출처: 저자작성

4. ‘고과’의 지식생산 면모

고과의 출제범위는 주로 격치와 양무가 주를 이루었다. 1886년-1894년까지 총88문제의 분류를 보면, 승웨즈 선생은 인재·시무·과학·경제·사론(史論)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시무 45문제, 과학 24문제, 경제 12문제 순으로 많다.⁵⁴⁾ 왕열민 선생은 크게 격치 22개, 어문 2개, 교육 4개, 인재 4개, 부강치술 25개, 농산수리 4개, 사회경제 2개, 국제상황 3개, 변방 6개, 기타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⁵⁵⁾ 이를 다시 격치(22문제), 교육(10문제), 부강치술(25문제), 국제상황(9문제), 농수산사회경제(6문제)로 재분류하였고, 이 가운데 격치(22문제), 부강치술(25문제)이 가장 많다. 모두 양무와 서학을 위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음은 다름이 없다. 따라서 고과는 양무(시무·부강치술 등)의 문제와 서학[격치]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격치서원의 장정에도 출제범위를 “양무를 위주로 하고 부국·강병·기계제조·군량조달 등의 류”⁵⁶⁾라고 하였듯이, 격치서원 고과는 ‘부강’, ‘격치’를 핵심으로 한 신사상·신지식의 논의의 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격치서원 운영자 왕도는 “현재 모든 서학의 원리는 격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으며, 기계를 만드는 것도 모두 격치를 그 근본으로 한다.”⁵⁷⁾라고 말하면서, 서학의 수용은 격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치서원의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양무시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부강치술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서학 특히 격치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격치서원과예』의 기본적인 출제 범주는 대체로 서학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이며, 주로 중국 전통학문 개념인 ‘격치’를 활용하여 서학(주로 자연과학, 과학기술 등)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는 당시 양무시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부국강민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서학 특히 격치에 대한 이해가 기본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서학을 수용함과 동시에 전통 지식체계의 재인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격치서원과예』안에는 서양의 근대 과학과 중국의 전통 격치를 비교하면서 그 사이의 내적 연관성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 관점에 대해 비교적 심도 있는 논의도 있지만,⁵⁸⁾ 격치에 대한 인식과 시각은 비교적 단선적이고 인상적인 면이 존재한다. 당시 정말 학술계나 양무 지식인들이 방향을 중국 전통지식체계로부터 서학을 인식하

54)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293-297쪽.

55) 왕열민은 1886년-1893년 8년간의 자료에 따라 총77문제로 분류하였다. 격치류 22문제는 격치총설3문제·천문역산3문제·기상2문제·물리4문제·화학2문제·의학3문제·측량2문제·지학(地學)3문제이다. 부강치술류 25문제는 부강총설2문제·공업3문제·운선철로3문제·상무이권14문제·우정(郵政)1문제·해군2문제이다. 기타4문제는 의원·형률·연수(捐輸)·교무이다. 王爾敏, 『格致書院志略』, 56-69쪽. 승웨즈는 1886년-1894년 9년간의 자료에 따라 총88문제로 분류하였다. 승웨즈는 왕열민이 『上海格致書院志略』에서 광서20년 과예를 “未及發刻”이라 했는데, 이 판본을 못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301쪽 참고.

56) “以洋務爲主, 旁及富國強兵制械籌餉之類.”

57) “竊謂近今一切西法無不從格致中出, 制造機器皆由格致爲之根柢.” 李芳, 『中西文化交會下的教會書院』, 長沙: 湖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8年, 28쪽.

58) 물론 서학과 격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중도경예(重道輕藝)와 중예경도(重藝輕道), 서학중원, 예실구야(禮失求野), 허실관(虛實觀)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점도 제시되었다. 본고는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격치서원과 고과의 매커니즘(기구, 제도, 인물)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서학과 격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

고자 했으므로, 다소 총체적이며 범범한 이해에 머무른 점이 있다.

한편, 격치에 대한 인식을 볼 때, ‘도와 예’, ‘의리와 물리’, ‘허와 실’, ‘존고박금’, ‘서학중원’ 등의 관점은 표면적으로는 서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이지만, 더 심층적인 문제는 ‘학(學)’의 면에서 중국의 학문적 경험과 축적이 독립적으로 ‘학’을 탄생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서학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는 중요한 고민이었으며, 격치서원 고과의 서학 수용 관련 내용과 관점 역시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도-예’·‘본-말’·‘허-실’·‘의리-물리’·‘존고박금-희신염고’ 및 ‘서학중원’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기존 전통학문의 관념과 가치를 표준으로 한 인지구조 안에서 서학을 인식했던 것이다. 즉 전통학문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틀 안에 서학을 ‘용’의 범위에 한정했던 것이다. 둘째, 격치서원 고과에 반영된 일련의 내용은 일정 정도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청 말 서학의 세력이 광범위해지고 거세짐에 따라 서학을 수용하는 기구도 많아지고 서학을 접촉하는 지식층도 넓어졌다. 격치서원은 고과를 통해 서학을 전파하는 기능을 하였고, 거기에 참여한 지식인들도 서학의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 등을 수용·이해하면서, 나아가 근대 학문체계와 학문 방법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되었다. 먼저 ‘의리의 격치’에서 ‘물리의 격치’로 전환되는 과정이 그러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미약하나마 근대 학문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격치서원은 기본적인 지식생산기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생산 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대적 상황과 환경 하에서 어떤 기구와 조직을 설립하여 관련 행위자[지식인]들이 제도[또는 활동]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생산·창출하고, 매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격치서원 고과의 전 과정을 보면 이러한 초보적인 지식생산 공정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서학의 유입과 전파 그리고 서학에 정통한 양무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시대적 환경 하에 격치서원[기구]은 고과라는 활동[제도]을 통해 신문 등 매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양무지식인들은 문제를 출제하고 각 지역의 응시자[행위자-지식인]들은 시험을 통해 양무지식을 생산하였다.⁵⁹⁾ 그리고 그들의 우수 내용[지식]은 출판하여 우편으로 판매[유통]하고 『신보』등에 판매광고[홍보]를 싣는 일련의 과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격치서원과 고과는 지식생산의 공정[기구-지식인-지식생산-홍보-판매-유통]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면서 양무지식생산의 구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마치며

지금까지 격치서원과 격치서원의 고과를 대상으로 기구, 제도, 인물, 지식 등의 측면에서 격치서원의 지식생산면모와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격치서원의 고과 활동을 통해 어떤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서학을 전파하고 생산했는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격치서원과 고과의 함의 및 기능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격치서원은 일반 지식인을 대상으로 고과를 ‘제도화’시켜서 서학전파의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19세기말 이후 신지식인들은 주로 언어학당, 양무학당에서 근무하거나 교육을 받았던 양무지식인이자 매체를 설립 운영한 매체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던 양

59) 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 以『格致書院課藝』爲中心」 참고.

무 기구와 신매체는 당시 중국 지식계의 신학(新學)의 플랫폼이 되었다. 격치서원 역시 고과 활동을 통해 서학, 양무 지식을 토론하고 생산하여 훗날 양무, 유신변법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프라이어는 격치서원의 고과는 지식인과 고급관원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아직 열리지 않은 이 나라 인민들의 두뇌와 마음을 열어주고, 서양 과학의 각 영역의 진리로 그들을 계몽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격치서원의 지명도는 부단히 제고되었고, 또한 일부 고급관원들과의 합작관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되어 사람들에게 서방관념에 대한 흥미를 이끌었다.”⁶⁰⁾라고 하였다. 격치서원의 고과는 양무사업과 서학전파 및 인재양성에 영향을 주었고, 격치서원은 그를 위한 플랫폼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서학동점기의 서학 수용은 ‘충격과 반응’의 도식이었다. 민족의 위기상황에서 서학을 수용함과 동시에 서학에 버금가는 전통학문의 학술적 우수성을 발견하여, 외세에 대응하면서도 전통지식체계의 정체성도 유지해야했다. 격치서원의 양무지식인을 그것을 선진시기부터 이어오는 ‘격치’에서 찾고자 했다. 격치서원 고과에 반영된 격치에 대한 논의는 선진시기 격치로부터 시작하여 송대 성리학을 거쳐 청초 실학 사조를 이어 청말 양무운동과 서학을 연결하는 사상적 자원이 되었다. 이로 볼 때, 격치서원의 고과는 대응과 보호의 차원에서 서학을 전파·수용하는 한편 중국 학술사의 지속성을 이루어 나간 학술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차 아편전쟁이후부터 동남 연해 지역의 서학의 수용과 더불어 여러 가지 중서관계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핵심과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자원과 인재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학술생산기제가 필요했다. 따라서 양무 관료와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교육 권력을 활용하여 고과라는 형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 볼 때 격치서원의 고과는 학술적인 면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치사회적 의식과 의미도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격치서원의 고과는 양무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여론을 조성하고, 서학 수용을 통해 학술적 변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신지식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청대 일부 신식서원의 시험형식은 외과(外課) 형식이었고 책론(策論)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는 격치서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격치서원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격치서원이 기타 신식서원과 다른 점은 中-西, 官-商-士의 설립과 기부로 설립되었고, 산장 위주가 아닌 이사회와 관리체제, 신매체와의 네트워크 활용, 격치 위주의 서학지식의 수용, 신지식인의 출현과 영향 등은 근대 교육과 사상을 열어가는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강남제조국, 광방언관, 경사동문관, 무비(武備)학당에서 주로 서양언어를 배우고 서양서적을 번역하고, 서방기술을 습득하는 한계를 넘어 서학에 대한 논의와 탐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성숙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上海圖書館, 『格致書院課藝』(4冊), 上海: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6年.

劉明, 『格致書院課藝研究』, 上海: 上海社會科學院碩士學位論文, 2015年.

60) “打開這個國家的人民那迄今為止尚未開啓的頭腦和心靈. 用西方科學各個領域的真理來啓蒙他們.” “通過這種方式, 格致書院的知名度不斷提高. 它還確保了與一些高級官員的合作關係, 并在一些最具影響力的地方, 引起了人們對西方觀念的興趣.” 『傳蘭雅檔案』第2卷, 131-132쪽. 熊月之, 「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之確立: 以『格致書院課藝』爲中心」, 153쪽 재인용.

顧長聲,『傳教士與近代中國』,上海:上海人民出版社,2013年.

王尔敏,『近代上海科技先驱之仁濟醫院與格致書院』,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11年.

熊月之,『西學東漸與晚清社會』,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1年.

赵中亚,『格致汇编與中國近代科學的啟蒙』,上海: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2009年.

沈立平,『格致書院課藝中的科學內容研究』,上海:上海交通大學碩士學位論文,2009年.

于瀟,『王韜主持格致書院的改革嘗試』,大連: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8年.

张立程,『西學東漸與晚清新式學堂教師群體研究』,北京:中國人民大學博士學位論文,2006年.

郝秉鍵·李志軍,『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以上海格致書院為例』,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2005年.

邓洪波,『中國書院史』,上海:中國出版集團東方出版中心,2004年.

张晓靈,『晚清西學的流行與西學的傳播:以上海地區為中心』,上海: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2004年.

陈谷嘉·邓洪波,『中國書院史資料』(3卷),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年.

王尔敏,『上海格致書院志略』,香港:香港中文大學出版社,1980年.

黃勇德,「淺析19世紀80年代晚清士人對中西格致異同的認識:以『格致書院課藝』和『萬國公報』為視角」,北京:『科技資訊』,2017年 5月.

魯小俊,「清代書院課藝序言的地域書寫」,成都:『西南民族大學學報』,2017年 1月.

熊月之,「『格致書院課藝』在晚清思想文化史上產生了巨大的作用」,上海:『學術界』,2016年 8月.

熊月之,「新群體新網絡與新話語體系的確立:以『格致書院課藝』為中心」,上海:『學術月刊』,2016年 7月.

刘明,「格致書院考課制度述論」,上海:『都會遺踪』,2015年 1月.

魯小俊,「書院課藝:有待深入研究的集部文獻」,桂林:『學術論壇』,2014年 11月.

尚智叢,「1886-1894年間近代科學在晚清知識分子中的影響:上海格致書院格致類課藝分析」,北京:『清史研究』,2010年 8月.

毛志輝,「關於『19世紀晚期中國民間知識分子的思想:以上海格致書院為例』的不足及錯謬」,北京:『中國圖書評論』,2010年 5月.

郝秉鍵,「晚清民間知識分子的西學觀:以上海格致書院為例」,北京:『清史研究』,2006年 8月.

郝秉鍵,「上海格致書院及其教育創新」,北京:『清史研究』,2003年 3月.

李志軍,「格致書院與實學教育」,北京:『清史研究』,1999年 8月.

李長莉,「晚清對西學的兩種誤讀:論鐘天緯的西學觀」,南京:『江蘇社會科學』,1999年 第6期.

熊月之,「格致書院與西學傳播」,上海:『史林』,1993年 2月.

孫邦華,「傅蘭雅與上海格致書院」,北京:『近代史研究』,1991年 第6期.

김영식,『동아시아과학의 차이』,서울:사이언스북스,2013년.

김유리,『서원에서 학당으로』,서울:한국학술정보,2007년.

김해연,『동서종교문화교류사』,서울:성지출판사,2003년.

박영순,「상하이 中西書院과 ‘中西并重’의 함의」,서울:『중국학논총』,2018년 제59집.

정병석,「東西交渉에서 드러난 儒學의 文化的認知構造와 堅固한 自我意識」,『동양철학연구』,2007년, 제50집.